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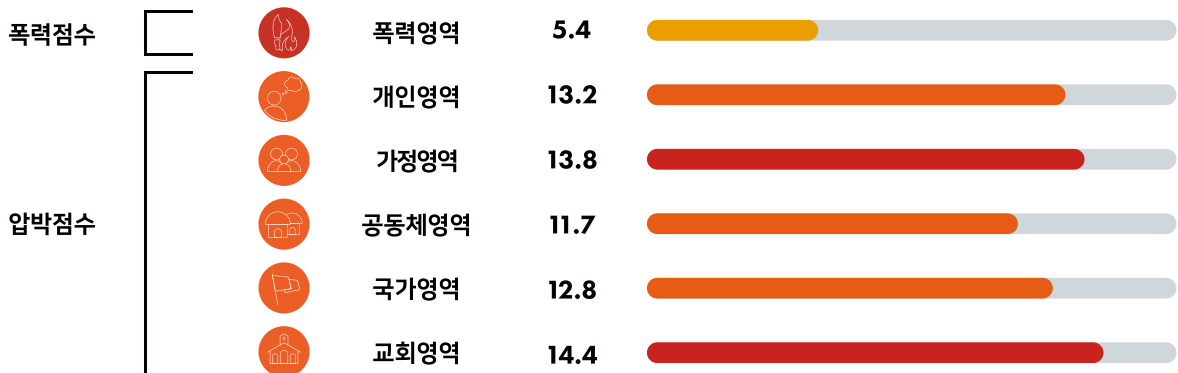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24위

모로코 (MOROCCO)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x 16.7=100)

중요한 발견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복되는 문제는 "무슬림 신앙을 흔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모로코 형법 220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독교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정부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표적이 된다. 이 법은 오직 개종하게 하는 포교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상속권과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한다.

모로코 (MOROCCO)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6세 국왕

인구 : 38,194,000

기독교인 수 : 31,200 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의회가 있는 입헌 군주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1,200	0.1
이슬람교	38,073,000	99.7
불가지론	49,200	0.1
바하이교	37,900	0.1

출처 ²

모로코는 1956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그 이후로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유지해 왔으나, 2011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으로 인해 수 많은 시위대가 실업에 좌절하고 더 많은 시민의 자유를 요구하였다. 그때 정부는 헌법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아랍 세계의 대부분을 휩쓸었던 정치적 격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르베르족이 거주하는 북부 리프 지역에서는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무시 당한다는 불만이 강하다.

국가 공식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인구의 99%가 무슬림으로 대부분 수니파이다. 역사적으로 큰 공동체였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20세기 중반부터 크게 감소했다.

Middle East Concern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의 개종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적 조항들 안에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와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슬람의 종교적 신념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슬림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이나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사람은 형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체 조직법은 이슬람을 약화시키려는 모든 집회는 금지하며, 비이슬람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무슬림으로 등록된 사람은 비무슬림과 결혼할 수 없다.

모로코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외국인 가톨릭 신자들인데, 외국인을 위한 공인된 교회는 주요 도시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모로코 원주민 기독교인은 이런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로코 기독교인 대다수는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이며, 그들의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 고용 시장에서 차별과 사회적으로 악한 처우를 받는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보안 기관에게 치밀한 감시를 받으며, 대부분 친족과 사회에서 적대의 대상이 된다.

모로코 기독교인, 특히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은 미디어 게시물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슬람교나 국왕의 종교적 권위를 비판하면 체포와 구금, 사회적 증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모로코 기독교인 대부분은 가명을 사용하여 기독교 자료를 게시한다. 고무적인 측면으로는, 인터넷 접속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기독교 개종자들이 지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¹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무슬림은 시골 지역에서 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건이 북동부, 아틀라스 산, 동남부 사막 지역에 사는 베르베르인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개종자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학대에서 벗어나기가 비교적 쉽게 때문이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감시를 받으며, 전도 활동에 가담하였다고 여겨지면 강제 추방을 당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에 비하면 비교적 자유롭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기독교인은 일반적으로 오순절 신자들로서 대개 소외되고 차별을 겪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가정 교회에서 만난다. 개종자들에 대해서 도시 지역이 좀 더 관용적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라는 압박은 여전히 받는다, 또한 그들이 전도에 가담하는지 감시를 받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모로코는 이웃 나라에 비해 탄압이 온건한 편이지만, 아랍어로 된 성경이나 기독교 문서는 몰수하며,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거나 무슬림 출신 개종자를 위한 예배에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개종자들은 자신의 새로운 믿음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서 모멸을 피하지 못한다.

독재 정치

모로코 정부는 교회나 개종과 연관되는 활동에 대해 강력하게 감시한다. 모로코는 이슬람과 국왕과 나라에 충성 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왕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많은 외국 기독교인들은 절차 과정 없이 강제 추방당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무슬림 급진 단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황을 완화하여 어떤 불안한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문화적으로 특히 시골 지역은 여성들이 가사에 매이게 되는데. 무슬림 출신 개종자들은 가정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강제 결혼, 강제 이혼, 자녀에게 접근 금지, 가택 감금, 가족으로부터 축출 등을 당한다. 기독교 자료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종교적 복장과 종교 의식을 지켜야 한다. 강간과 성희롱은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금기로 여겨지는데, 종교적 강제적 압박을 위해 이것이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런 일은 또한 모로코 안에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주민들에게도 일어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 공동체 및 연결망 접근 제한
- 자녀 양육권 박탈
- 상속 또는 소유 제한
- 기독교인 배우자와의 결혼에 대한 법적 제한
- 종교적 복장에 대한 강제 규정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남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모로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로 여겨지는데, 이는 그들이 가족에게 수치를 주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정적으로는 가족의 배척, 재정 지원과 상속 거부, 그리고 아내에게 버림 당할 수 있다. 미혼일 경우에,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는 하나, 무슬림과 결혼해야 한다는 강압이 일어날 수 있고, 남성들은 공공연하게 심문과 구타와 투옥을 당하기도 한다. 개종 이후에 받는 반발의 강도는 그의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입지에 따라 다르다. 주로 고용의 문제로 압박을 받는데, 그것은 남성이 보통 가족의 주 부양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상황에서도 차별이 일어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교육에서 차별과 괴롭힘
- 일, 직업, 사업에서 경제적인 괴롭힘
- 가정으로부터 강제 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신체적 / 정신적

월드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24	71
2023	29	69
2022	27	69
2021	27	67
2020	26	66

박해 점수가 상승한 것은 가정과 공동체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압박과 폭력이 지난 해 박해 지수 4.8에서 5.4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차별과 배척을 당한다. 이들은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보안 기관으로부터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친척과, 사회적 적대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Alamy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경찰에 의해 모임이 중지되었다.
- 수 명의 모로코 기독교인이 경찰에게 공개적으로 체포된 후 그들의 활동에 관해 심문을 받았으며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공개 체포는 가족과 지역 사회 앞에서 낙인을 찍어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게 한다.
- 수 명의 젊은 기독교 여성이 강제로 이주 당하여 고립되거나,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혼의 강제적 압력을 받았다.
- 수많은 모로코 기독교인들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으며,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가족에 의해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다.
- 여러 명의 비모로코 기독교인들이 개종에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되었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구금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추방당한 기독교인	강제 결혼 당한 기독교인
2024	13	13	3	3
2023	21	27	4	2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직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지 기독교인이나 이주민 기독교인 모두에게 위협하다. 이것은 모로코 법에 의해 "무슬림의 신앙을 뒤흔드는 죄"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사회에서 개종자가 기독교의 상징을 보이거나 그들의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때 공동체가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므로 개종자들은 자신의 새로운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영역

무슬림 여성과 기독교 남성 간의 결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의 자녀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차별과 괴롭힘과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당하기도 한다. 기독교 가정은 이슬람에 동화되기를 강제로 압박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가기도 한다.

공동체영역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기독교는 모로코의 전통적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박해가 더욱 가중되어, 심지어 제국주의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모로코 보안국은 현지 및 외국인 기독교인의 활동을 감시하며,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독교로 구분되는 어떤 단체의

조직도 금지한다. 또한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압력은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부모 동의 없이 이슬람 교육을 강제로 받게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영역

정치적으로 헌법이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로코 기독교인의 상황은 척박하다. 기독교적 신념이 분명하거나 개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민 단체는 정부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기독교 전도는 금지되어 있고, 그것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교회영역

기독교적인 활동은 개종을 도모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은 제약을 받는다. 외국인 이주민 교회는 모로코 국민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모로코 국민이 교회를 직접 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성경 전시와 판매는 금지되어 있고, 그것을 강제 추방의 구실로 삼기도 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로코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 (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모로코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배척을 당하고 가족들에 의한 반대에 직면하며,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의 위협을 받는다 (ICCPR 제 18조)
- 여성 개종자들은 강제 결혼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 당한다 (ICCPR 제23.3조, CEDAW 제1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는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에서 규제에 직면하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당한다 (ICCPR 제25, 26조, ICESCR 제6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유대교는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소수 종교이며, 유대인들은 가족 문제를 다루는 자체 종교 재판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 공식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사실 상 수니파(말리키) 이슬람만 사회적으로 허용한다. 시아파 무슬림, 아마디교 무슬림, 그리고 바하이교는 정부의 제압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몇몇 무신론자와 기타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오픈도어의 모로코 사역

오픈도어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 후원을 일으킨다.

